

## “세계의 원자력 르네상스 트렌드에 뒤진 일본은 고통스러운 토론이 필요”

타쿠야 핫토리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이사장



- 7월의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 회담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과 해외의 원자력에너지 현황을 어떻게 조망하는가?

유가의 가파른 상승과 에너지 안보에의 기여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향상에 따라 그리고 온실가스 방출의 저감의 관점에서 원자력의 장점이 새롭게 고려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 유독 일본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들에 뒤쳐져서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

만약 누군가가 일본이 현재의 정체 상태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세계적인 원자력 르네상스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고 묻는다면 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아니오’ 일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일본은 인내하면서 차근차근히 노력을 경주하여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처음 상용화된 이래 40년이 흘렀다. 아마도 원자력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해야 할 현안들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 세월이 흘러왔고 그러면

서 너무 많은 문제들을 ‘길가에’ 남겨놓았던 것이다. 나는 그러한 미해결된 질문들이 오늘에 이르러 일본을 현저하게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원자력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는데 실패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에 대하여 대중들이 불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원자력 기술 특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원자력 르네상스에 고무되어 우리가 지금 공격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문제만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이는 특히 개도국들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그러하다.

최근 TV와 신문의 보도는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러시아를 이루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는데, 기업 경쟁이 강화되면서

\* <Atoms in Japan> 2008. 4. 16

‘원자력 거품’을 일으킬 수도 있을  
을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  
면 원자력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  
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에 언급하  
는 노력을 포함하여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바가 있  
다고 생각한다.

- (1) 필요한 선정 및 검토 작업의  
틀(framework)을 만드는 일
- (2) 설비 제작 능력의 개발
- (3) 설계와 건설에서 경험 있는  
인력의 확보
- (4) 주변 산업 체계의 개발(운  
영과 보수)
- (5) 방사성폐기물 대책의 채택
- (6) 비용의 계산

바로 지금 시점에서 보다 더 실제  
적인 예측에 근거하여 확실한 단계를  
밟아나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디에  
선가는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원자력 분야에 관여하는 사람으  
로서 나는 다가오는 홋카이도 도야  
코 G8 정상 회담에서 원자력발전  
소에 대한 깊이 있는 선언문이 채  
택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상  
회담 참여국들의 원자력 정책 관점  
에서의 입장의 차이와 교토의정서  
이후 그 프레임워크와 실제 진입에  
대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나는 유감스럽지만 탄산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과  
기술들 가운데서 원자력이 가질 중  
요한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선언문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COP13 발리 로드맵의 조항에  
따라 교토 이후 이슈들에 대한 홋  
카이도 도야코 G8 정상 회담에서  
의 토의는, 그 사안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2009년 말까지 개  
최 예정인 COP15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지구 온난화  
의 주요한 대응책으로서 원자력 발  
전을 이용하는데 대한 향후 논의의  
초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JAIIF는 41번째 연차 회의를 4  
월 15,16일에 도쿄에서 개최할 예  
정이다. 국제 원자력 산업계의 많  
은 참가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  
으로 보는가?**

이 회의의 기초 테마는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원자력  
이 수행해야할 역할’이다.

특히 국제 협력과 조정을 통한  
원자력 개발의 추기와 여러 나라들  
의 최근의 원자력 개발들과 해외 원  
자력 분야에서 채택된 접근 방법들  
과 관련하여서 일본과 그 밖의 나라  
들에서 원자력산업이 당면하는 문  
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장을 제공하  
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특히 회의 첫날 오후 세션에서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브  
라질 남아프리카 대표들과 일본의  
대표들이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  
하여 소개함으로써 원자력 선진국들  
과 신흥 원자력 국가들의 여건과 에  
너지 전략들을 조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 발표와 각국  
의 의견 교환을 통해 이 회의가 여  
러 나라 참석자들이 이른바 ‘원자

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그것이 실  
제 이루어지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

개최될 JAIIF 연차회의가 르네상  
스 분위기에 채찍을 가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현실에 근거를 두  
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  
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 회의  
가 여러 사람들이 원자력 르네상스가  
실체적인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의미  
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  
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나는 원자력산업 분야 사람  
들이 현재의 트렌드를 다루는 방법  
에 대한 견해들을 교환하고, 그리  
고 신뢰할 수 있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보다 넓은 사회의 견해와 반응  
들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제 협력으로 다룰 수  
있는 해법들과 개별 국가들이 스스  
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해결책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원자력 르네상  
스’의 본질적 특성과 실제 현실과  
함께 그것이 당면하는 이슈들을 철  
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앞에서 일  
본이 오늘날의 원자력 르네상스 트레  
드에서 뒤쳐져 있다고 말했지만 그러  
나 이러한 원자력 르네상스를 현실적  
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경험  
과 기술과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이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기  
여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